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미술관 관계자가 설명하는 ‘산신도’에 해당하는 것은? [1점]



2. (물음)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겸손한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
- ②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 ③ 위기에 처했을 때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 ④ 나의 삶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삶도 소중하다.
- 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3. (물음) 강연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전염병 확산의 주범은 전쟁이다.
- ② 환경 파괴로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 ③ 전염병 확산의 주범은 교통수단의 발달이다.
- ④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⑤ 현대로 오면서 전염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이 대담에서 두 토론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 ① 동물 실험과 동물 학대는 다르다.
- ② 동물 실험은 인간의 이기적인 발상이다.
- ③ 동물 실험은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 ④ 동물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다.
- ⑤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다.

5. (물음) 두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교수가 다소 논리적이려면, 이 교수는 다소 감정적이다.
- ② 김 교수가 현상에 대해 우호적이려면, 이 교수는 비판적이다.
- ③ 이 교수는 현상의 결과를 중시하고, 김 교수는 원인을 중시한다.
- ④ 이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⑤ 김 교수는 사회적인 통념을 비판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숫자에서 연상한 사물을 활용하여 '생활에 대한 반성과 다짐'의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숫자	연상(형태)	속성·기능	떠올린 내용
① 0		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즉흥적이고 변덕 심한 성격을 고쳐야 한다.
② 3		듣는 기능을 한다.	일을 그르치는 독단적 태도를 버리고 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③ 5		단힌 문을 열어 준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7		보행의 어려움을 돕는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보다는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한다.
⑤ 8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하기보다는 칠전팔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표현은?

< 보기 >

○ 조건

- 그림에 나타난 주제를 반영할 것
- 역설과 비유적 표현을 모두 사용할 것

- ① 합창에서 한 명의 실수가 노래를 망치듯이, 때로는 작은 하나가 소중한 전부입니다.
- ② 나 하나를 버리면 모두를 얻을 수 있지만, 모두를 버리면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 ③ 느려도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가끔은 느린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④ 우리 모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남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 ⑤ 우리는 한 배를 탭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8. '다민족 사회에 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활용한 논지 전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 건수

연도	2000년	2002년	2004년
건수	12,319	15,913	35,447

㉡ 혼혈인에 대한 인식 조사

주변에서 국제 결혼 자녀(혼혈인)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혼혈아동 학업 중도 탈락률

학교	혼혈아동	일반학생
초등학교	9.4%	0%
중학교	17.5%	1.1%

㉣ '코시안(Kosian)' 용어 자체가 차별
- 학교 현장의 '다인종 이해 교육' 절실 -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이 50만 명을 넘는다. 여기에 3D업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를 합치면 그 수가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한국 핏줄' 하인스 워드의 성공 스토리에는 갈채를 보내지만 여전히 외국인 및 혼혈아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살기시민연대'에서는 내국인과 결혼해 낳은 자녀를 '코시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든 기존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를 차별하려는 천박한 순혈주의적 발상이라며 용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다인종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촉구 하고 있다. - ○○신문 -

- ①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② 3D업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임을 밝힌다.
- ③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차별 심리가 담긴 말(㉣)의 사용이 부적절함을 비판한다.
- ④ 성공한 혼혈인에 대해 갖는 열광적인 관심(㉡)과 대부분의 혼혈인에 대한 무관심(㉣)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한다.
- ⑤ 혼혈 아동 학업 중도 탈락률(㉢)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9. '금리 인상의 영향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새로운 자료를 접하였다.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 style="text-align: center;"><개요></p> <p>주제 : 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p> <p>I. 서론 : 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p> <p>II. 본론</p> <p>1. 금리 인상의 긍정적 효과</p> <p>가. 가계 저축 증가</p> <p>나. 인플레이션 예방</p> <p>2.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p> <p>가. 가계와 금융기관 부실 초래</p> <p>나. 투자를 위한 기업 대출 증가</p> <p>다. 부동산 가격 안정</p> <p>3. 대책 마련</p> <p>가. 가계와 은행 부실 방지책 수립</p> <p>나.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p> <p>III. 결론 : 대책 실천 촉구</p>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 접한 자료></p> <p>ㄱ. 최근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많이 상승하였다.</p> <p>ㄴ.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최근 0% 가까이 떨어졌다.</p> <p>ㄷ.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p> <p>ㄹ. 금융 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파산하는 개인과 기업이 증가하면 은행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p> <p>ㅁ.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는 금리 인상을 비판하면서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p> <p>ㅂ. 한 경제학자는 불경기의 금리 인상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	--

- ① 'ㄱ'과 'ㄹ'을 활용하여 서론을 '최근 금리 인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체한다.
- ② 'ㄷ'을 활용하여 'II-2-다'를 'II-1'아래로 이동시킨다.
- ③ 'ㄹ'과 'ㅂ'을 활용하여 'II-2'에 '경기 침체 심화 가능성'을 추가한다.
- ④ 'ㄴ'과 'ㅂ'을 활용하여 'II-2-나'를 '투자를 위한 기업의 대출 감소'로 수정한다.
- ⑤ 'ㄱ'과 'ㄹ'을 활용하여 'II-3'에 '금리 조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 대책 수립'을 추가한다.

10. 다음은 논술문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제	지원자가 줄고 있는 학과의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작성한 내용	최근 ○○대학에서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특정 학과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실로 ㉠ 충격에 휩싸였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며, 지성의 요람이다. 지원자 수를 가지고 학과의 존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 말갈지 않은 소리다. 지난 입시에서 ○○대학 △△학과의 경우 모집정원 30명에 불과 2명만이 지원했다고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 운영의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과만을 남긴다면 대학이 가진 본래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리고 없어지는 학과의 관련자들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① ㉠은 주어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충격적인 일이다'로 고쳐야겠어.
- ② ㉡은 거친 표현이므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고쳐야겠어.
- ③ ㉢은 앞 문장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로 고쳐야겠어.
- ④ ㉣은 '이해'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니 '양해'로 바꿔야겠어.
- ⑤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
수사(數詞)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품사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수량과 순서를 의미한다고 하여 모두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량과 순서에 관계되는 말이기는 하나 ㉠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이름의 경우에는 명사로 처리해야 한다. 수사는 모든 사물의 수량을 두루 가리키는 보편적 지시 특성을 띠고 있다.

- ① 나는 사과 하나를 사 왔다.
- ② 우리는 둘이서 산길을 걸었다.
- ③ 여덟에 하나를 더하면 아홉이다.
- ④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하루를 보냈다.
- ⑤ 입상자 가운데서 첫째가 철수이고 둘째가 민수이다.

12. 혼동하기 쉬운 어휘의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낚음 기한에 늦지 않으려면 기일 내에 일을 끝마쳐야 한다.
- ② 사건을 조중하는 배후 세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조정되었다.
- ③ 오랫동안 고전해 온 상대팀을 이기고 오랜만에 승전가를 불렀다.
- ④ 걸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도 걸잡아 이틀 정도면 잡힐 것으로 보인다.
- ⑤ 마주오던 화물차끼리 충돌하면서 뒤에 오던 승용차들이 연달아 추돌하였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말 아닌 말로
병실(病室)의 전설을 주받는
㉠ 흰 벽(壁)과
하아얀
하얀
벽

화병(花瓶)에 씨들은 따알리아가
날개 부러진 ㉡ 두루미로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슬픔-
무너질 상심은
가슴에 숨어드는
㉢ 차군 입김을 막아다오

실끝처럼 여윈 사념(思念)은
회색 문지방에
알 길 없는 손톱그림을 새겼고
그 속에 뚜욱 떨어진 ㉣ 황혼은 미치려나
폭풍이 헤여드는 내 눈앞에서
미치려는가 너는

시퍼런 핏줄에
손가락을 엿어보는 마음-
손 끝에 다양한 적은 ㉤ 움직임
오오 살아 있다
나는 확실히 살아 있다

- 이용악, 「병(病)」

(나)

여명(黎明)의 종이 울린다.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답이 운다. 개가 짖는다.

[A]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서 간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빛은 장마에

[B]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荒野)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生)의 감각(感覺)을 흔들어 주었다.

- 김광섭, 「생의 감각」

(다)

[C]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D]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E]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죽음에 대한 화자의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
- ②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삶에 대한 화자의 달라진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해 발견한 삶과 죽음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14. ㉠ ~ ㉤ 중, (나)의 채송화(채송화)와 시적 기능이 유사한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A] ~ [E]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모습을 시제(時制)에 따라 해석한다고 할 때, 해석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당 부분	해 석
[A]	→ 시적 화자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느끼는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①
[B]	→ 시적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본 과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C]	→ 시적 화자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상황을 돌이켜 보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다..... ③
[D]	→ 시적 화자가 과거에 예상했던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E]	→ 시적 화자는 현재의 자신이 바라본 과거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⑤

16. <보기>는 (다)를 감상하기 위해 모은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관련 영화 정보

영화 <질투는 나의 힘>의 주인공 '이원상'은 가난한 대학원생이다. 그는 직장 상사이며 자기보다 유능한 인물인 '한윤식'에게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긴다. 그 후 그는 좋아하게 된 여인 '박성연'을 한윤식에게 다시 빼앗기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상'은 '한윤식'을 질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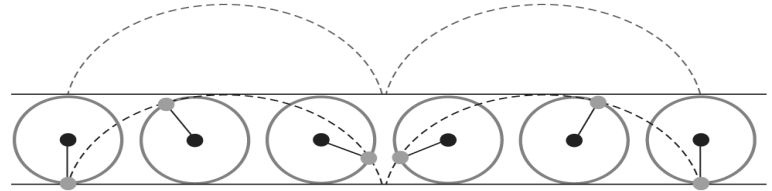
○ 작가 정보

시인 '기형도'는 가난과 가족의 죽음으로 이른 나이에 삶의 고통을 체험하는 불우한 유년을 보낸다. 대학 졸업 이후 그는 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도회지의 일상을 담은 독창적인 시를 썼으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만다.

- ① 영화 주인공 '이원상'처럼 시의 화자도 삶에 대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
- ② '마음'에 '공장'을 세우고 '기록'한다는 표현에서 시인의 도회적이고 독창적인 발상이 느껴져.
- ③ 시에서 '나'의 청춘이 우울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실제 시인의 가난하고 힘겨웠던 삶과 연관되겠군.
- ④ 영화의 '이원상'은 질투 속에서 절망을 느끼는데, 시의 화자는 '질투'속에서 긍정적인 희망을 느끼는군.
- ⑤ 영화 속 인물 '한윤식'처럼 시의 '누구'는 시적 화자인 '나'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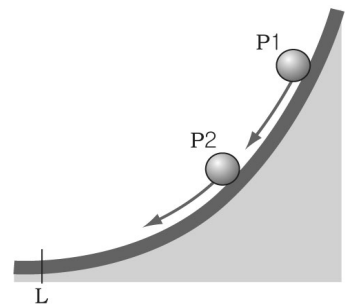
'사이클로이드'는 '바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 나온 말로 굴러가는 바퀴상의 한 점의 궤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둥근 굴렁쇠에서 고정된 한 지점이 평평한 지면 위를 앞으로 진행해 갈 때 굴렁쇠의 고정된 한 지점도 따라 움직인다. 이 때 고정점은 하나의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고, 이 곡선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며 반복된다.



1599년경 갈릴레이는 이 곡선을 '사이클로이드(cycloid)'라 하였는데, 파스칼이 사이클로이드를 연구하며 고통스러운 치통을 앓았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이 곡선의 아름다움에 ㉡ 사로잡힌 사람이 많았다. 이 때문에 수학자들은 '사이클로이드'를 종종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헬렌의 아름다움에 빗대어 '기하학의 헬렌'이라고 ㉢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사이클로이드는 다른 움직이는 물체의 자취와는 달리 특별한 성질이 있다.

그림처럼 사이클로이드 위에 여러 개의 공을 거리를 두고 놓으면 아주 짧은 순간에 공이 중력에 의해 굴러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점 L이 사이클로이드의 가장 낮은 점이고 오른쪽 P1, P2에서 동시에 굴렀을 때, L에 도착하는 시간이 같다. 즉 사이클로이드 위에 두 개의 공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동시에 떨어뜨리면 두 개의 공은 바닥으로 동시에 도착한다. 즉, 사이클로이드 위에 놓인 물체는 거리에 관계없이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사이클로이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성질이 있다. 직선과 사이클로이드를 따라 공을 굴리면 어느 공이 먼저 도착할까? 언뜻 생각하면 직선 경로가 길이가 짧아서 시간이 짧게 걸릴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거리는 직선이 짧지만 시간은 사이클로이드가 가장 적게 걸린다. ㉣ 사이클로이드 위에서는 처음에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위에서의 평균 속도보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위의 평균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러한 사이클로이드의 성질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초가 지붕의 처마와 납작하게 휘 기와의 모양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다. 특히 제주도의 초가 지붕은 낮고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A] 새풀로 지붕을 이었는데, 처마 끝의 물매(경사도)는 자연스럽게 60~65도가 되어 빗물이 잘 흘러내린다. 전통 가옥의 휘어진 기와 역시 사이클로이드 곡선 모양을 하고 있어 비로 인한 목조 건물의 부식을 ㉤ 막고 있다.

동물들도 이러한 성질을 알고 있다.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나 매는 땅 위에 있는 들쥐나 토끼, 쥐, 뱀 등을 잡을 때 직선으로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로이드에 가깝게 목표물을 향해 곡선 비행을 하며 먹이를 ㉥ 잡는다. 또한 다른 새들도 몸체를 기준으로 날개 끝이 사이클로이드 형태의 타원 궤적을 이루며 이로 인한 양력으로 전진하고, 물고기의 비늘에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 자연의 효율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이클로이드에서는 가벼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
- ②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특성은 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③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활용할 줄 안다.
- ④ 많은 과학자들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⑤ 직선 위의 공보다 사이클로이드 위의 공이 더 빨리 굴러 떨어진다.

18.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표면에 홈이 파인 골프공은 공기 저항이 줄어 더 빨리 날아간다.
- ② 곡선으로 꺾인 길이 직각으로 꺾인 길보다 속도 내기가 유리하다.
- ③ 직선형보다 나선형 계단을 이용하면 원하는 층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 ④ 놀이터의 미끄럼틀을 곡선으로 만들면 사람이 내려가는 시간이 빨라진다.
- ⑤ 비행기를 곡선 형태로 만들면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빨리 날 수 있다.

19. [A]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 기와는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
- ② 기와의 모양을 보니 납작하게 휘어져서 기와 위에 떨어진 빗물이 빨리 흘러내리겠군.
- ③ 초가지붕 위에 떨어진 빗물이 빨리 떨어지는 현상에 담긴 원리도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관련되는군.
- ④ 기와의 모양이 납작하게 휘어진 것은 기와 위에 떨어진 빗물이 빨리 흘러내리게 하기 위한 의도로군.
- ⑤ 한옥 지붕의 기와가 배열된 모양에도 빗물로부터 한옥 지붕을 보호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

20.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생성(生成)된 ② ㉡ : 매료(魅了)된
- ③ ㉢ : 명명(命名)하기도 ④ ㉣ : 방지(防止)하고
- ⑤ ㉤ : 포획(捕獲)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쾌락주의(hedonism)’는 ㉠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쾌락’이고, 이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선(善)’이라고 보는 관점의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快樂)’은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때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와 관련된 개념이다.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충동을 가지고 있다. 허기, 갈증, 분노, 시기, 동정심 등과 같은 감정도 이에 해당된다. 이 욕구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쾌감 또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이 그러한 쾌감을 얻겠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구한다는 것이 쾌락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쾌락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실’의 문제로서, 인간이 항상 쾌락을 실제로 추구하는지를 검토해 보자. 쾌락주의에서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자신의 쾌락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그들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행위조차도 그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자신의 쾌락과 관계없는 어떤 다른 목표를 지향하는 행위도 실제로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행위를 통해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만족감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쾌락은, 직접적 추구의 대상이라기보다 그 자체로서는 반드시 쾌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어떤 행위의 부산물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쾌락을 얻는 바람직한 방법은 쾌락을 의식하지 않고 중립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모든 행동은 오로지 자신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행해진다.’는 주장은 행위의 목적과 그 부산물을 혼동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치’의 문제로서 ‘쾌락은 바람직한 것, 즉 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주장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 내지 당위를 말하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쾌락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쾌락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쾌락이라 할 수 있을까? 일찍이 에피쿠로스학파는 욕구나 결핍을 충족시킴으로써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적게 가지라고 충고했고, 또 남에게 선의나 자비와 같은 덕을 베풀 것을 권고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다음과 같은 쾌락 기계를 한번 가정해 보자.

쾌락 기계 속에 한 사람이 누워 있다. 이 장치를 통해 온갖 행복감이 느껴지도록 제어된 자극이 그의 뇌에 전달된다. 이 사람은 평소 꿈꿔 왔던 모든 종류의 행복을 누린다. 그는 이것이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지극히 행복하다. 그러다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기계 장치가 꺼짐과 동시에 아무런 고통 없이 죽게 된다. 자, 당신은 기꺼이 이 기계에 들어가겠는가?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제의를 거절할 것이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쾌락의 획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꿈 속의 쾌락보다는 비록 고통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현실의 경험을 선택한다. 이 현실의 경험이야말로 우리 삶의 참다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환상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둔 행복을 원한다. 그

러자면 먼저 쾌락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현실(reality)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현실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에게 쾌락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다양하다.
- ② 쾌락은 욕구나 결핍이 충족되었을 때 최고조에 이른다.
- ③ 쾌락은 개인에 따라 행위목표이기도 하고 행위 결과이기도 하다.
- ④ 인간은 실제적 체험과 관련된 기쁨으로서의 쾌락을 추구하려 한다.
- ⑤ 개인의 만족과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은 모두 쾌락 추구의 한 방법이다.

22. 위 글의 글쓰기 전략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ㄱ.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ㄴ. 상황의 가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ㄷ.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상의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ㄹ.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여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 ㉠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비판하였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항상 쾌락을 원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쾌락은 곧 선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쾌락을 원한다.’는 진술은 어떤 사실에 관한 주장이며, ‘쾌락은 곧 선이다.’는 등의 진술은 가치에 관한 주장으로서 본래 그 영역이 다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 [A] ’와 같은 대전제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 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선이다.
- ② 쾌락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한다.
- ③ 선과 쾌락은 원래 같은 것이었다.
- ④ 사람들 속에는 선이 반드시 존재한다.
- ⑤ 많은 사람들이 선의 의미를 알고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딸딸이 또 밤 열두 시에 돌아온대서 벌써부터 기다리고들 있었다. ㉠ 서성대는 사람은 없으나 언제나처럼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는 감돌고 있었다.

은행 두취*로 있다가 현역에서 은퇴하고 명예역으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지금도 거기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한 달 살림은 넉넉했다.) 칠십이 넘은 주인은 연한 남색 명주옷을 단정하게 입고 응접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입긴 입었으나 어쩐지 헐렁헐렁해 보이고 축 늘어진 앉음새는 속이 허하여 혼자 힘으로 일 어설 힘조차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귀가 멀고 반백치였다. 그러나 허연 살결의 넓적한 얼굴은 훨씬 젊어 보이고 서양 사람의 풍격(風格)을 느끼게 하였다. 며느리 정애(貞愛)와 막내딸 영희(英姬)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한복 차림을 싫어하는 왕년의 시아버지의 뜻대로, 정애는 봄 스웨터에 통이 좁은 까만 바지 차림이고 영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며느리와 시누이는 사이 좋은 자매를 연상케 하였다. 세 사람은 모두 넓은 창문 너머 어두운 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애는 시아버지의 한 팔을 부축하고 앉았고 영희는 옆에 턱을 받치고 앉았다.

㉡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프레한 기운에 잠겨 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하다.

팡 당 팡 당.

먼 어느 곳에선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 거리의 철공장이나 대장간에서 별절게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로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팡 당 팡 당.

단조로운 소리가면서 송곳처럼 쭈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間歇的)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장은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궁을 했다.

팡 당 팡 당.

그 쇠붙이의 쇠망치에 부딪히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중략 줄거리] 밤 12시에 복한에 있는 딸딸이 돌아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작곡가를 꿈꾸나 실상 현실로 나아가기를 겁내는 성식과 정애 부부,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이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 영희, 이들 네 명의 가족은 오늘은 큰 딸이 반드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매달린 다. 바깥에서는 ‘팡 당 팡 당’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팡 당 팡 당.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뽀조록히 돌아 올랐다.

층층다리를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소리이나 쿵쿵 온 집채가 흔들리듯이 울리고 있었다. 아득한 곳을 내려오는 소리 같았다. ‘복도에 불을 켜 둘 걸, 괜히 죽었지.’ 영희는 몸서리를 치면서 이렇게 힘을 주어 속으로 중얼댔다. 어쩐지 어두운 속을 내려오는 모습보다는 환한 속을 내려오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좋을 성싶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다. 물론 오빠일 것이다.

㉢ 문이 열리고 안경을 쓴 오빠가 들어서고 있었다. 안경알이 차게

번쩍었다. 역시 혼자서 못 견디겠는 모양이었다. 영희를 대하기가 난처할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혼자 있느니보다는 나를 성싶으니까 내려왔을 것이었다.

“오빠, 아직 안 잤수?”

차악 감겨드는 정겨운 목소리로 영희가 물었다. 성식은 한 쪽 볼이 약간 추켜올려지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겁겁하게* 비실비실 피하는 듯한 몸짓을 하며 정애와 영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영희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오빠, 언니두 알아요. 다 얘기했는 걸 뭐, 그런 게 뭐 그리 대단 하우?”

이상한 일이었다. 정애와 마주 앉으면 명주실을 뽑아 내듯 단단한 소리가 나와지고, 오빠만 끼우면 차게 맵게 신랄해지고 싶은 것이었다. 성식은 안경알 속에서 한 번 웃는 듯하였다.

영희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오빠 웃구 있수?”

“...”

“오빠 웃구 있수? 이제 웃었수?”

“...”

성식은 무엇을 털어 내거나 하려는 듯이 상을 찡그리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였다. 정애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영희와 남편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 순간 벽시계가 열두 시를 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일제히 시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안이 술렁술렁해졌다. 시계를 쳐다보던 세 사람의 시선이 다시 늙은 주인 쪽으로 향했다. 코앞의 사마귀를 만지던 늙은 주인이 어리둥절하게 아들과 며느리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복도로 통한 문이 열리며 방안의 불빛이 복도 건너편 흰 벽에 말갭게 빠져 나갔다. 열두 시가 다 쳤다. 네 사람의 시선이 그 쪽으로 옮겨졌다. 조용했다. ㉤ 왼편 벽으로부터 서서히 식모가 나타났다. 히히히히 하고 이상한 웃음을 띄우고 서 있었다. 제편에 미안하다는 뜻인 셈이었다.

“벤소에 갔었시유.” 하고 말했다.

순간 영희가 발작이나 일으킨 듯이 아버지 쪽으로 달려갔다. 한 손으로 식모를 가리키며, 한 손으로는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쪼개지는 듯한 큰소리로 말했다.

“아부지, 자 봐요. 언니가 왔어요, 언니가... 정말 열두 시가 되

[A]었으니까 언니가 왔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 주인이 나타났군요. 됐지요? 아버지 자, 어때요? 됐지요? 아버지.”

식모가 이번엔 소리를 내며 웃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렇게 언니가 왔어요. 그렇게도 기다리시던 언니가 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식모를 내다보는 영희의 눈길은 적의(敵意)로 타오르고 있고, 아버지는 영희의 부축을 받으며, 저리 비키라는 것인지, 혹은 어서 들어오라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게 한 손을 들어 허공에다 대고 허우적거리고, 성식과 정애도 엉거주춤하게 의자에서 일어서 있었다.

팡 당 팡 당.

그 쇠붙이 소리는 밤 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 이호철, 「닭아지는 살들」

*두취: 고위 관직 혹은 우두머리, 예전에 은행장을 이르던 말

*겁겁하게: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다.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특정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반복되는 사건에 대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는 구도를 통해 인물의 행위를 풍자하고 있다.
- ⑤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다.

25. 위 글을 읽으면서 <보기>의 내용을 떠올렸다고 할 때,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중략)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중에서

- ① 물질 문명에 맞선 정신적 가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 ② 현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으므로
- ③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인물들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 ④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 ⑤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26. [A]에 암시되어 있는 ‘영희’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 ② 이제 무의미한 기다림은 그만 두자.
- ③ 의사소통이 원활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자.
- ④ 온 가족이 재회할 날의 희망을 버리지 말자.
- ⑤ 한 사람에 대한 집착보다 여러 사람을 생각하자.

27.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누군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행위가 일시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 ② ㉡ : 어둡고 을씨년스런 사건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 ③ ㉢ : ‘문’은 음산한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오빠’를 등장시켜 현실의 폐쇄된 삶에서 벗어나게 할 출구의 기능을 한다.
- ④ ㉣ : 기다림의 대상이 온다던 시간으로 인물들의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다.
- ⑤ ㉤ : ‘이상한 웃음’을 띠며 등장한 식모는 가족들에 의해 형성된 극적 긴장감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술이 본격적으로 ‘일상’ 또는 ‘일상성’을 주제로 삼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 예술이 신화를 다루었다면, 중세의 예술은 종교 예술로서 성인(聖人)의 이야기를 다루어왔다.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예술은 역사적인 사건과 그 무대에서 활동한 영웅들의 모습 그리고 삶의 원형으로서 자연과 같은 다분히 형이상학적 주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예술이 일상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패트런*을 통한 주문 제작 방식이 무너지고 예술가들의 작업이 자율성을 띠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를 지나는 동안 이른바 ‘모더니즘’의 시기가 도래했고, 여기서 근대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일상’ 또는 ‘일상성’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몇몇 비평가들은 근대 문학 혹은 예술의 중요한 특징으로 ‘개인의 발견’과 ‘사생활’을 꼽는데, 이는 인간의 존재 근거를 개인의 사유에 둔 근대 철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일상’은 비속한 것, 또는 단편적인 개인적 경험 정도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근대의 특질에 가장 잘 맞는 사진은 누구나 쉽게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서 고귀한 예술이 아니라 ‘평범한 예술’이 되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들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고 기념사진, 여행사진 등을 만들어낸다. 사진은 애초부터 일상을 기록하기 위한 ‘보통 예술’로 출발한 셈이고 통속화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이러한 통속성 때문에 사진은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한편에서 사진은 통속화에 저항하면서 전통 시각 예술처럼 품위 있고 우아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19세기 후반에 서양에서 유행했던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이나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발생한 형식주의자들이 고안한 방법-사물과 일상의 일부를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하거나 예기치 못한 프레임으로 잘라내는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방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친숙한 세계로서의 일상 안에 있는 대상을 비일상의 세계로 끌어 들임으로써 오히려 대상의 본질에 가깝게 가자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사진은 ㉠ 미술관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상이라는 주제는 사진이 예술의 장으로 들어오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진이 고립화, 비통속화, 비일상화의 길을 걷는 동안 오히려 전통 시각 예술은 사진이 끌어들이는 일상이라는 주제를 진지한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팝아트이다. 팝아트는 사진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시 사진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예술을 지향하는 사진은 일상을 주제로 삼는 것을 꺼려했거나 일상을 비일상화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예술적 입지를 확보했지만, 팝아트의 해석 방식에 자극받아 다시 일상에 눈을 돌린다. 이제 일상은 ‘평범한 예술가’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만 사진의 주제인 것이 아니라 예술로서의 사진을 지향하는 사진가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래부터 다 같이 근대의 산물이란 점에서 사진과 일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인식한 사진가들은 일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해석하고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예술이 누구한테나 열린 세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진 발명 이후 다시 열린 것이다. 그래서 사진과 일상 혹은 일상성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지금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첩경이 된다.

* 패트런 : 예술 활동을 후원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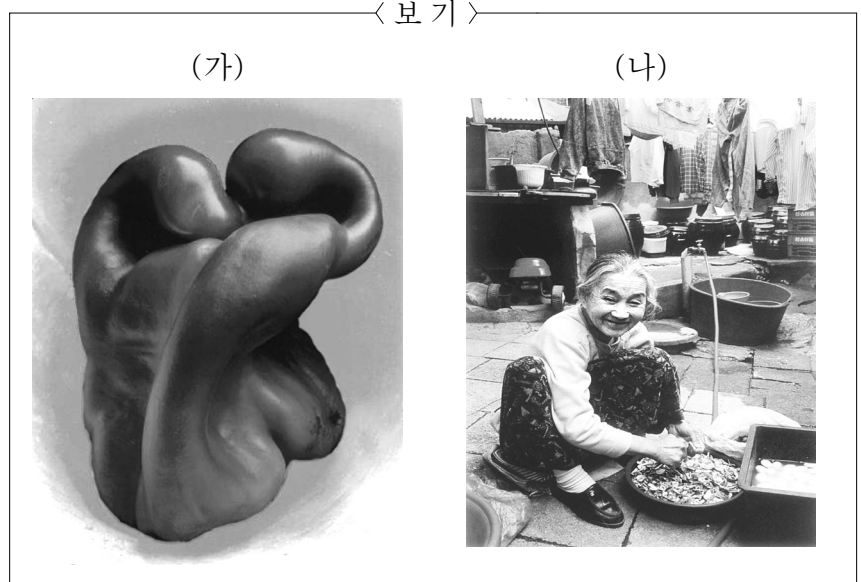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근대 이전 예술의 주제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이었다.
- ② 전통 시각 예술가들은 사진의 통속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 ③ 예술 작업의 자율성은 ‘일상’이 예술의 주제로 등장한 바탕이 된다.
- ④ 근대 예술은 ‘개인의 발견’이라는 근대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⑤ 디지털 매체의 출현은 사진의 예술적 승화에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29.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 ② 감상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 ③ 역사적 가치를 존중받았다.
- ④ 과학이 아닌 예술로 인식되다.
- ⑤ 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30.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일상의 소재인 ‘피망’을 극단적으로 확대하여 촬영했다는 점에서 팝아트의 창작 방법과 유사한 것 같아.
- ② (나)는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평범한 사진이지만, 이 사진도 사람의 일상이 반영된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 ③ (가)를 보니 전통 시각 예술처럼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려는 사진가의 노력이 느껴져.
- ④ (나)에는 할머니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근대 예술의 중요한 특징과 통하는 것 같아.
- ⑤ (나)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통속적인 사진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어.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고, 그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까? 만물의 영장답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일까?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이론은 규범적 선택 이론이다. 이 이론은 18세기 고전 경제학에서 출발한 효용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은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두 번째 이론인 기술적 선택 이론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인간은 최대 만족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여 ㉠ 규범적 이론을 부정한다. 즉, 인간이 완벽한 선택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선택 행위에 심리적 측면을 적용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과 카너먼은 인간이 ㉡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가정이 지닌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인간이 지닌 선택의 방법은 현실 속에 주어진 것들 중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라는 ‘만족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려는 어떤 사람이 ㉢ 그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와 가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고, 어떤 시점에서 수집된 정보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정확한 정보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선택은 ‘만족의 극대화’가 아니라 비교적 ‘만족스러운 대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카너먼은 ㉣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유망이론(prospect theory)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가치 판단은 누구나 동일한 절대 0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득이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 따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즉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 준거점이다.

유망 이론은 ㉤ 개인차가 있는 각자의 준거점에서 출발하며 이득 영역과 손실 영역 부분에 개인의 민감한 심리적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효용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제 선택 행동을 설명한다. 카너먼은 이러한 인간의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결과물을 x축으로, 개인이 느끼는 가치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인간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의 감정을 이득감으로, 어떤 것을 잃었을 때 감정은 손실감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득 영역에서는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면 처음에는 그로 인한 이득감이 급격히 증가하나, 일정한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득감의 증가폭이 줄어든다. 이 내용은 전통적인 효용 이론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유망 이론과 효용 이론은 다르다. 이는 가치 함수의 이득 영역과 손실 영역에 나타난 기울기의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손실 영역은 이득 영역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것은 같은 가치를 가진 결과물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과 그것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두 연구자는 규범적 선택 이론인 효용 이론에 반기를 들고, 그 대안이 되는 심리학적 의사 결정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선택을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만족이 극대화되는 합리적 선택보다 ㉥ 비교적 만족스러운 주먹구구식 선택을 보이

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31. 위 글을 통해 답을 알 수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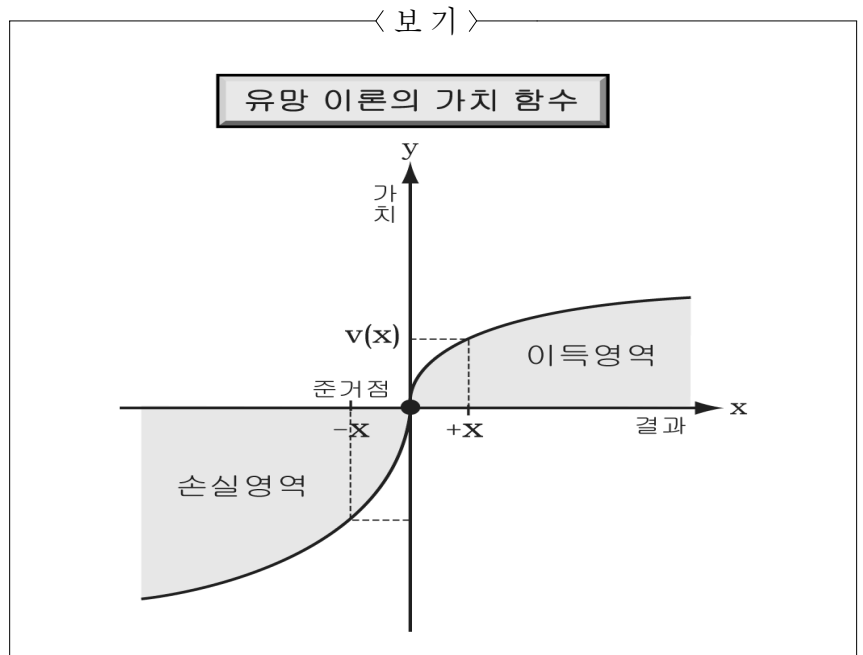
- ① 인간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② 인간의 선택과 판단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 ③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④ 비합리적인 선택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대안을 마련할까?
- ⑤ 인간의 선택 행위에 대한 효용이론과 유망이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32. ㉠~㉣ 중, ㉦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3.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어떤 사람이 길에서 1만원을 주웠을 때 (+X)의 기쁨보다 1만원을 잃어버렸을 때 (-X)의 상실감이 더 크다.
- ②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과 손실 영역의 기울기가 다른 것은 인간이 느끼는 이득감과 손실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③ 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가 그것을 반품할 때, 환불 받은 만 원의 이득감보다 만 원짜리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상실감이 더 크다.
- ④ 그래프의 손실 영역 기울기가 가파른 것은 어떤 물건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얻었을 때의 이득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⑤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이라는 백화점 광고 문구는 물건을 많이 구매할수록 무한히 늘어나는 이득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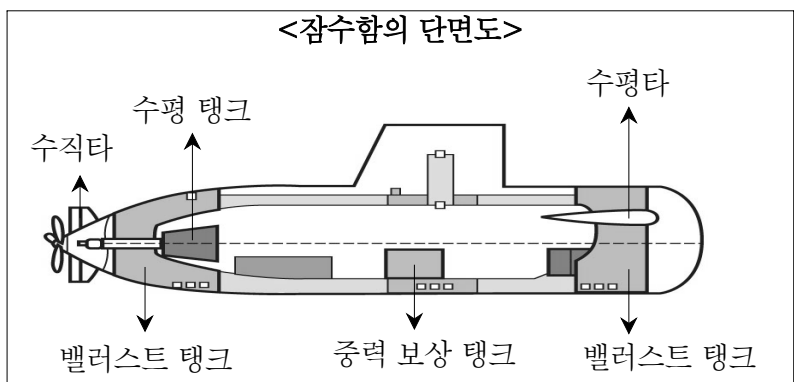
3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은행마다 이자를 따져 보고 결정한다.
- ② 경력을 주로 따지는 회사에 입사했다.
- ③ 양서와 악서를 잘 따져서 읽어야 한다.
- ④ 나는 그와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다.
- ⑤ 약속을 어긴 이유를 따져 보고 꾸중한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잠수함은 제2 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유-보트’가 눈부신 전과를 올린 후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후 잠수함은 바다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잠수함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담겨 있다.

초기의 잠수함은 수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배처럼 앞을 뾰족하게 제작했다. 그러나 잠수함이 수면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아지고 잠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속도를 높이고 물속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형으로 바뀌었다. 수중에는 파도 저항은 없고 물로 인한 마찰 저항만 있으므로, 잠수함의 돌출된 부위를 매끈한 유선형으로 만들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흐른 것이다.



잠수함이 가라앉거나 뜨는 원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연관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인 부력(浮力)은 그 물체가 밀어낸 ㉠ 유체(流體)의 무게와 같다. 그리고 이 부력은 유체의 밀도, 물체의 부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잠수함에서 부력을 조절하는 방법이 밀도와 연관이 있다. 잠수함에서 부력을 조절하는 것은 선체 앞뒤에 있는 탱크로 이것을 밸러스트 탱크라고 한다. 잠수함이 ㉡ 물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이 탱크에 ㉢ 공기를 채워 잠수함 전체의 평균 밀도를 ㉣ 해수보다 낮게 해야 한다. 반대로 밸러스트 탱크에 해수를 채우면, 잠수함의 평균 밀도가 해수보다 높아지고 잠수함은 급속도로 내려가게 된다. 보통 밸러스트 탱크는 함수(艦首)와 함미(艦尾) 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잠수함은 ㉤ 염분 농도가 일정하지 않은 바다 속을 항해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의 변화로 밀도가 변하면 뜨거나 가라앉게 된다. 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잠수함의 밀도가 주위보다 낮아지므로 잠수함은 위로 상승한다. 이를 막기 위해 중력 보상 탱크에 해수를 채워 준다. 또한 식량 소모로 잠수함의 중량이 감소할 때에도 중력 보상 탱크에 해수를 채워 주며, 이 탱크는 잠수함의 균형을 고려해 중앙부에 설치한다. 수평 탱크는 말 그대로 잠수함의 수평을 유지해 주는데, 함수와 함미 쪽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한다. 보통 밸러스트 탱크보다는 안쪽에 두며, 동체가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쪽의 탱크로 물을 이동시켜 수평을 유지해 준다.

한편 잠수함 조종과 관련된 장치는 수직타와 수평타이다. 수직타는 함미의 프로펠러 쪽에 부착되어 있는 조종 장치로 그 단면이 비행기의 수직 날개처럼 생겼으며, 좌우 운동으로 잠수함에 회전력을 제공한다. 수평타는 함수와 함미에 각각 하나씩 있어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며, 잠수함이 지니는 부력의 방향을 바꾸어 잠수 깊이를 조절한다. 해수면 위로 빨리 떠오를 때는 밸러스트 탱크를 조절하지만, 미세한 잠수 깊이는 수평타로 조절한다. 이러한 조종 장치로 잠수함은 동적인 안정성을 얻게 되며, 애초에 동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잠수함은 빈번히 수평타를 조절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 장치를 갖춘 잠수함은 현대 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동력 장치와 무기 체계, 통신 체계가 어우러져 잠수함은 전쟁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35.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잠수함의 형태와 원리
- ② 잠수함의 구조와 기능
- ③ 잠수함과 바닷물의 관계
- ④ 잠수함 개발의 역사적 과정
- ⑤ 전쟁에서 잠수함이 차지하는 비중

36. ㉠ ~ ㉤ 중, <보기>의 ㉡ 과 기능이 같은 것은?

< 보기 >

열기구를 통해 인간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다. 열기구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불연성 소재로 된 커다란 주머니에 ㉡ 열을 가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주머니 안의 공기 분자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면 주머니 속의 공기 밀도가 주위보다 낮아져서 열기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위 글의 잠수함 작동 원리를 <보기>의 ‘가상 전투 상황’에 적용하였다. ㉠ ~ ㉤ 중, 적절한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기 >

<가상 전투 상황>

	전투 상황	조작 대상
㉠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 비상 잠수함	수평 탱크
㉡	염분 농도가 높은 해수로 이동함	중력 보상 탱크
㉢	가상 적이 발사한 가상 어뢰를 피하기 위해 잠수 깊이를 조절함	수평타
㉣	갑자기 잠수함의 동체가 기울어지는 상황에 대처함	수직타
㉤	다른 임무 수행을 위해 좌측으로 긴급 선회함	밸러스트 탱크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8. [A]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물속에서 마찰 저항이 파도로 인한 마찰 저항보다 크다.
- ② 유선형 잠수함은 잠수 시간이 길어지면 속도가 떨어진다.
- ③ 물 위에서나 물속에서나 유선형이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 ④ 초기 잠수함은 주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 ⑤ 파도 저항을 극복하는 데에는 유선형보다 뾰족한 형태가 유리하다.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말 업슨 청산이오, 태 업슨 유수 | 로다.
 갑 업슨 청풍이오, 남즈 업슨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업슨 이 몸이 ㉠ 분별(分別)없이 늘그리라.

- '성혼'의 시조

(나)

곳 피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 하야 시넷ㄹ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셔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락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蜂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펴는 듯. 엇 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 홀샤.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단표 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 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다)

절망인가? 천만에. 피정(避靜)을 아시는지? 잡다한 일상의 사무로부터 조용한 곳으로 피하여 오랜 시간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는 일을 일컫는 아름다운 천주교 사투리다. 안거(安居)를 아시는지? 탈없이 편안히 있음이다. 일정한 기간 외출을 삼가고 한데 모여 수행하는 일을 일컫는 아름다운 불교 사투리다. 그렇다. 푸 나무는 다만 피정에 들었을 뿐이다. 다만 동안거(冬安居)에 들었을 뿐이다.

<안거>는 산스크리트 어 <바르시카>에서 온 말이다. <바르시카>는 <비 많이 오시는 철>, 즉 <우기(雨期)>, <스님들이 나다닐 수 없는 우기>라는 뜻이다. 겨울은 피정과 안거의 철이다. 충전의 철, 축기(縮氣)의 철이다.

<자의식의 생일은 비오는 날>이라는 말이 있다. 고대의 원시인들은 날씨 좋을 때는 먹거리 사냥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오면 사냥터로 나갈 수가 없다. 동굴 같은 데 따리를 틀고 앉아 있으려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사냥에는 ㉢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잡생각이 그들의 자의식을 키웠을 것이다. 바로 그 자의식이 형이상학의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 삶에도 <바르시카>가 있었다. 어렵던 청소년 시절, 힘겹던 군대 시절이 나의 바르시카다. 군대 시절에 있었던 일 하나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특수 훈련을 받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네 시간 동안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했다. 설마 네 시간 동안이나? 그렇다. 정확하게, 휴식 시간 없이 네 시간 동안 우리는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했다. 네 시간의 절반은 배를 땅바닥에 붙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조교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어 땅바닥에서 배를 떼려고 했다. 누가 가장 긴 시간 땅바닥에서 배를 떼고

있었는가? 나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땅바닥에 배를 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그날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나는 삶이 힘에 부칠 때마다 엎드려 팔굽혀펴기 하던 그날을 떠올린다. 단언컨대 그보다 더 힘에 겨운 일을 나는 아직 경험한 적이 없다.

이 겨울을 힘에 겨워하는 이들을 겨누고 쓴다. 밖에서 겨울을 나지 않은 알뿌리 식물은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 <바르시카> 만세.

- 이윤기, 「겨울이여, 나의 <바르시카>여」

39.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현상을 통해 과거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삶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현실적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 세태의 모순을 풍자하고 있다.

40. ㉡의 의미로 볼 때, ㉠이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병들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살리라.
- ② 세속에서 벗어나 분수에 맞게 살리라.
- ③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의 삶을 살리라.
- ④ 소박한 삶을 위해 걱정거리를 버리리라.
- ⑤ 자연에 몰입하는 친화적 삶을 누리리라.

41. (다)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르시카'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 ㄱ.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겪는 시련의 시간
- ㄴ. 과거에 겪은 고난을 떠올리는 회상의 시간
- ㄷ. '나'라는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
- ㄹ. 번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ㄷ

42. (나)의 화자 'A'와 <보기>의 화자 'B'가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겹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오.

- 정약용, 「보리타작」

- ① B: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제야 참다운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 ② A: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③ B: 하지만 저는 속세를 떠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④ A: 그래서 당신은 농촌으로 돌아가 직접 노동의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삶의 기쁨을 얻고 계시는 거군요.
- ⑤ B: 기쁜 마음으로 하는 노동이라야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3. 발화의 의도를 고려할 때, ㉔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고향을 질러도 행인들은 무관심(無關心)하였다.
- ②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이론은 비논리적(非論理的)이다.
- ③ 사장은 사원들의 질문에 무성의(無誠意)하게 대답했다.
- ④ 그것은 뜻을 알 수 없는 무의미(無意味)한 언어로 보인다.
- ⑤ 이틀 동안이나 무용(無用)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였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전 줄거리] 서술자는 서상수의 집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나 예술적 수준이 뒤떨어지는 '비렁뱅이 거문고'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에 예술적 명성을 지닌 유우춘을 찾게 된다. 이후 우연히 금대거사의 이복동생이 유우춘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집을 찾아간다.

“이 거문고가 어떤가? 옛날에 나는 자네의 뛰어난 솜씨를 배울 뜻이 있어 그저 짐작가는 대로 벌레나 새가 우는 소리를 흉내 낸 적이 있었네. 그런데 남들이 ‘비렁뱅이 거문고’라고 해서 내 판에는 마음속으로 이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였다네. 어떻게 하면 곧 ‘비렁뱅이 거문고’를 면하고 잘 할 수 있을까?”

우춘이 손바닥을 두드리며 크게 웃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

“기이하도다. 그대의 말이여. 저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나, 파리가 웅웅대는 소리, ㉑ 온갖 공장이의 똑딱거리는 소리, 선비의 개구리처럼 개골개골 글 읽는 소리 등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뜻이 밍글 밍글 들어먹는 데 있는 것이네. 그러니 내 거문고나 자네의 비렁뱅이 거문고나 무엇이 다르겠나. 다만 나는 늙은 어머님이 계시니, 거문고 소리가 아름답지 못하고서야 어찌 어머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뿐이네. 그러나 내 아름다운 거문고 소리라고 해서 저 비렁뱅이 거문고의 아름답지 못하면서도 순박한 그 아름다움만은 같지 못하네.”

“처음 내가 거문고를 배울 때 비록 삼년 만에 기초가 이루어졌으나, 다섯 손가락에 못이 박히고, ㉒ 기술이 더욱 진보하였다고는 하지만 진보함에 따라 보수는 나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지네.” (중략)

“지금 유우춘의 거문고는 나라 안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정도지만, 그것은 유우춘의 이름을 듣고 아는 것일 뿐, 거문고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㉓ 종실의 사람들이나 높은 대신들이 때로 악공을 부르는 일이 있으면, 악공들이 부름에 응하여 저마다 익숙한 악기를 가지고 달려가 입대(入對)하는 거지.”

“그뿐인가 어디 마루에 오르면 등축이 환하고, 시종들이 나와서 ‘잘하면 상을 내릴 거야’ 하고 말하면, 악공들은 그저 굵실거리면서, ‘예, 예’ 대답을 하고는 연주를 시작하는 거야. 현악을 하는 자나, 관악을 하는 자는 서로 상의하는 법도 없이 길거나 짧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소리를 하나로 조화시킴도 없이 멋대로 연주하다가, 문득 소리가 동시에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소리가 문 밖에 흘러나오지 않으면, 주인은 흘깃 돌아다보고는 잠자코 의자 등에 몸을 기대고 한참 조는 듯 하다가는, 조금 뒤에 늘어지게 한번 기지개를 켜고는 ‘그만두어!’ 버럭 소리를 지르지. 그러면 악공들은 ‘예이!’ 대답을 하고는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거야.”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면 제가 연주하고 제가 듣다가 온 거지. 어디 그뿐인가? ㉔ 왕공·귀족의 자제들이나 이름 있는 명사들의 청담(淸談)의 모임에 또한 거문고를 안고 가서 자리에 앉지 않는 때가 없네. 그렇지만 나의 거문고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문장을 평하거나, 혹은 자기들의 벼슬을 비교하기도 하고 술에 잔뜩 취하게 되고, 등불이 가물가물 하는데 시를 짓는다고 법석을 떠다. 뜻은 높지만 문장이 거기에 잘 따르지 못하므로, 종이에 붓이 닿자마자 뭉개 버리고, 종이는 허공 중에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나를 돌아다보면서 ‘너는 이 거문고의 역사를 알고 있느냐?’ 하고 묻는 거지. 나는 굵실거리면서 ‘모르옵니다.’ 그러면 ‘옛날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었던 혜강이 처음 만든 거야’라 하지. 나는 다시 굵실거리면서 ‘그렇습죠’ 하네.” (중략)

㉔ “그들은 호방하면서도 악곡의 신기하고 미묘한 것은 살펴보지도 않는다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나의 친구 호궁기만은 그렇지가 않네. 한가한 날이면 서로 만나서 거문고 주머니에서 악기를 꺼내 그것을 매만져 가면서, 눈은 저 하늘을 향하고 뜻은 손의 움직임에 있지. 조금이라도 음색이 틀리는 데가 있으면, 꺾꺾 웃고 돈을 내놓는 거야. 그러나 두 사람이 많은 돈을 허비하는 일은 없네. 그래서 내가 말하지. ‘나의 거문고를 알아듣는 사람은 공기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나의 거문고는 오히려 내가 내 거문고의 더욱 정밀한 경지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지.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네. 자아. 그래도 자네는 공력을 적게 들이고,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숨씨를 버리고, 괴롭고도 긴 연마를 통해서 굳이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문고를 배우려 하니 이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 후 우촌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그 자신도 ㉕ 거문고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나를 방문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대체로 효심이 깊은 사람이며, 배우 중에서도 숨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말 가운데, “기술이 더욱더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격언이 어찌 해금에 한해서만 해당되리요.

- 유득공, 「유우촌전」

4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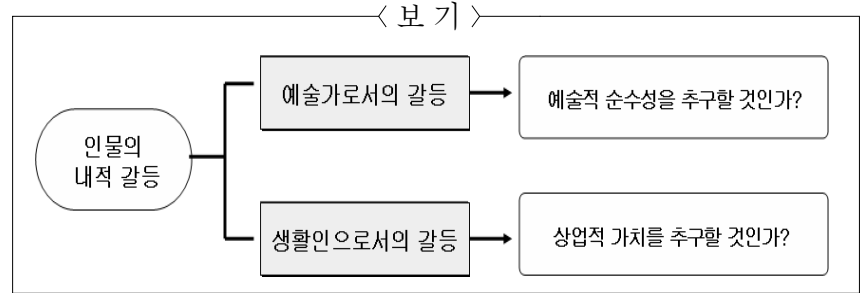
ㄱ. 한 인물을 통해 주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ㄴ. 장면의 급박한 전환을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ㄷ. 치밀한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ㄹ. 서술자는 알게 된 사실과 자신의 판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45.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인물 자신이 겪은 사건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②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실 사람들을 비웃고 있다.
 ③ 화음을 못 맞추는 악공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특정한 장면을 묘사하여 당시 세태를 부각시키고 있다.
 ⑤ 당시 사람들은 음악적 수준보다 연주 태도를 중시하였다.

46. 위 글의 중심 인물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한다고 할 때, ㉖ ~ ㉙ 중, 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㉖ ② ㉗ ③ ㉘ ④ ㉙ ⑤ ㉚

47. ㉖에 담겨 있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 음악은 완성되었다.
 ② 세상에 영합하지 않겠다.
 ③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④ 학문과 인격 수양에 정진하겠다.
 ⑤ 더 이상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방언(方言)이란 글자 그대로 지방(地方)의 말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한 언어 안에서의 언어 분화는 지역의 다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 지역 안에서도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이유로도 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방언은 그 분화 요인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지역적인 거리 때문에 생겨난 ㉠ 지역 방언과, 사회적인 거리 때문에 생겨난 ㉡ 사회 방언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 사회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회 방언 성립의 가장 보편적인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사회 계층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라면 계층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그 계층 간에 방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서 읍쇼’나 ‘그럼읍쇼’라는 말은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팔 때 사용되는 ‘깁는다’는 말과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각각 특정 계층 사람들에게만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계층이 가장 철저한 나라로 흔히 인도(India)를 드는데, 그 계층 간의 방언차도 매우 심하다. 가령 브라만 계층의 사람이면 몇 백리 밖의 브라만 계층 사람과는 같은 말을 쓰면서 바로 이웃의 비(非)브라만 계층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쓰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비단 멀리서 예(例)를 찾지 않더라도 경상도 지방의 방언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할아버지를 지칭할 때 양반층의 후손들은 ‘큰아베’라고 지칭하고, 서민층은 ‘할베’라고 다르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 역시 사회 계층에 따른 방언 분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별(性別) 역시 사회 방언 성립의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는 일도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빠’와 ‘누나’의 경우처럼, 애초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새말 또는 표준어에 대한 태도의 차이 때문에 언어차가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 ‘몰라 몰라’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여자에게만 용인(容認)이 되는 표현이 있어서 남녀의 언어차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간혹 어떤 남자의 말투를 두고 ‘계집애처럼 말한다.’라고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여자에게 ‘머슴애처럼 말한다.’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곤 하는데, 이는 성(性)에 따른 사회 방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현상 역시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요즘 학생들은 ‘과(科) 사무실’의 ‘과’를 ‘파’라 발음한다.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는데, 최근에 젊은 이들은 ‘장모’를 ‘어머니’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일들이 늘어나서 ‘도련님’, ‘형님’이라고 지칭하던 것을 ‘삼촌’, ‘고모’라고 하기도 한다. ‘자네 나 좀 보세’와 같은 말은 이제는 중년의 남성들이나 쓰는 말이며, ‘무지 많다.’나 ‘참 웃기다.’는 젊은이들이나 쓰는 말이다.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 계층이나 성별에 의한 사회 방언의 예보다 연령의 차이에 의한 예가 주변에서 훨씬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 그리고 연령차에 의한 언어 분화는 보편적이며 그 속도도 매우 빠르다.

마지막으로 스타일(style)을 들 수 있다. 어떤 말을 할 당시의 상황(situation)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 달리 말하는 말, 그것이 곧 스타일이다. 가까운 친구끼리의 말투와 대학 면접관 앞에 가서 하는 말투는 같지 않을 것이다. [A]

국어의 표준어를 정하는 기준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서울말이라는 지역 방언으로서의 제약과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 방언으로서의 제약이 함께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쓰는 말은 횡적으로 어느 한 지

역의 말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종적으로 어느 한 계층, 한 세대, 한 성을 대표하는 말일 것이다. 그만큼 사회 방언도 엄연히 방언의 일종임을 바로 인식해 두어야 한다.

48.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언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분화된다.
- ② 특정한 성별에만 허용되는 언어 양식도 존재한다.
- ③ 연령보다 성별에 따른 방언이 더 보편적인 현상이다.
- ④ 사회 계층의 차이가 분명하면 방언의 차이도 심하다.
- ⑤ 과거의 계층이 현재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4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은 ㉡를 발전시킨 기반이 된다.
- ② ㉠와 ㉡는 형성 요인에 따른 구분이다.
- ③ ㉠와 ㉡는 개인의 언어생활에서 함께 사용된다.
- ④ ㉠와 ㉡는 모두 표준어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⑤ ㉡가 ㉠보다 언어생활에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50. <보기>가 [A]에 들어갈 사례라고 할 때, 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ㄱ. 의사(醫師)인 김씨는 같은 의사들의 모임에 가서는 응급실을 ‘ER’이라고 지칭하지만, 다른 자리에 가서는 ‘응급실’이라고 한다.
- ㄴ. 이씨는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서는 육두문자도 사용하지만,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면 격식 있는 말을 사용한다.
- ㄷ. 박대리는 직장 상사이면서 대학 선배인 최과장에게 회의석상에서는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마치고 나와서는 ‘~했어요’라고 한다.

- ① 발화 상대자의 연령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② 다양한 계층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발화자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발화하기 때문이다.
- ④ 비격식적(非格式的)이며 낮은 수준의 발화이기 때문이다.
- ⑤ 개인 간의 친밀도에 따라 어휘 표현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